

Thematic Radar

Ep. 41 S&P500 정기 리밸런싱 이벤트

- S&P500 9월 정기 리밸런싱 발표. HOOD, APP, EME 편입되고 ENPH, MKTX, CZR 편출. 19일 증가로 반영
- 정기 리밸런싱 종목들은 발표 이후 반영일까지 2주간 패시브 펀드 유입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향
- 다만 반영일 이후에는 지수 편입 효과가 점차 소멸되며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 차별화

지난 5일 S&P500 정기 리밸런싱이 발표됐다. 9월 22일부로 S&P500에 Robinhood, AppLovin, Emcor이 신규 편입되고 Enphase Energy, MarketAxess, Caesars Entertainment가 편출된다. S&P500 지수는 유동주식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되며, 리밸런싱은 매년 3, 6, 9, 12월 시행된다. 신규 편입 종목은 시가총액(227억 달러 이상, 자유유동 시가총액 50% 이상), 유동성(FALR 0.75 이상), 수익성(최근 4개 분기 합산 및 가장 최근 분기 순이익 흑자)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산업별 대표성과 시장 균형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이번 편입 종목들은 각각 핀테크,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기업으로 신성장 섹터 위주다. 반면, 편출된 종목들은 신재생 에너지, 채권 거래플랫폼, 카지노 등 최근 모멘텀이 부진했던 업종들이다. 편입이 발표된 5일 이후 Robinhood, AppLovin 주가는 각각 +16.0%, 15.7% 상승했고 Emcor도 +1.4% 상승했다.

정기 리밸런싱의 경우 반영일 2주 전 발표되는데, 발표 이후 반영일까지는 패시브 펀드 유입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S&P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 VOO, IVV, SPY의 시가총액 합은 2016년 3,000억 달러에서 현재 2조 달러로 약 7배 정도 상승했다. S&P500 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수 편입 효과가 커짐에 따라 과거 대비 주가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10년간 정기 리밸런싱된 편입 종목들은 발표일부터 2주간 S&P500 대비 평균 +1.8%p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의 초과수익률은 평균 +5.0%p를 기록했다.

한편 S&P500 편입 종목은 편입 이후 수익률은 부진했다. 편입 발표에 따른 기대로 주가가 과열된 뒤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1개월 이후에는 지수 편입 효과가 점차 소멸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10년간 정기 리밸런싱으로 편입된 종목들의 편입 이후 S&P500 대비 1개월, 3개월 초과수익률은 평균 -0.7%p, +1.7%p를 기록했다.

그림 1. S&P500 추종 ETF 시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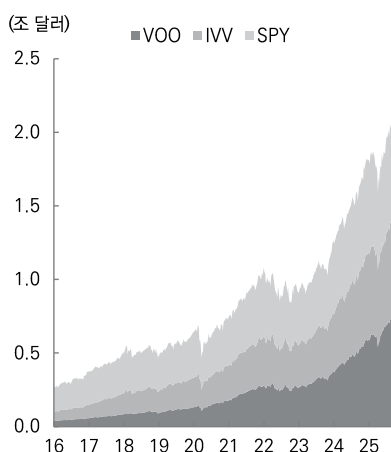


그림 2. 정기 리밸런싱 발표 이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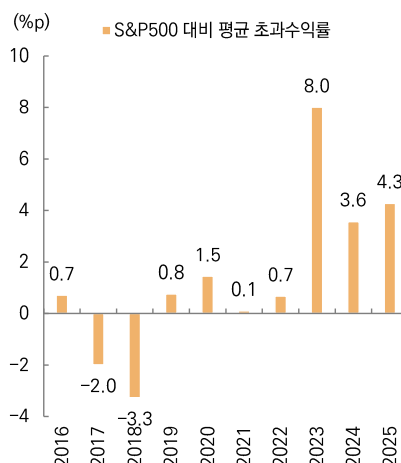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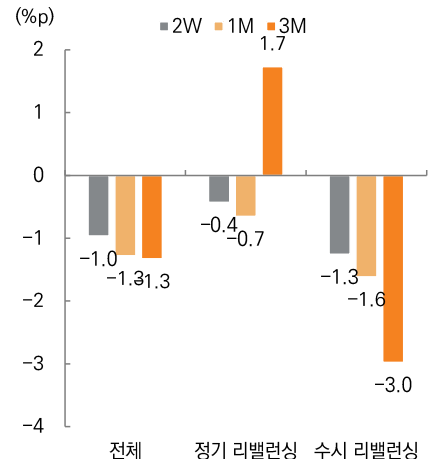


그림 3. 편입 이후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1: 그림 2의 초과수익률은 정기 리밸런싱 종목들의 '발표일 이후 2주 수익률'에서 'S&P500 2주 수익률'을 뺀 값의 평균값. 2025년은 6월 정기 리밸런싱 종목들까지 반영

주2: 그림 3은 2016년 이후 리밸런싱된 종목들의 편입일 이후 2주, 1개월, 3개월간 S&P500 대비 초과수익률의 평균값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